AI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라: 목회의 새로운 과제



하 늘

AI를 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맡기시며 "다스리라"(창 1:28)고 명령하셨다. 이 말씀은 인간이 창조 세계의 주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 받았다는 의미이다.

성경이 말하는 '정복'은 파괴적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지켜내는 통제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사건은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혼돈 위에 임할 때 질서가 회복된다는 표징이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세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적 권세이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 문물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들을 분별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던 이유 역시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그 땅에 깊이 뿌리내린 우상 숭배와 왜곡된 문화, 곧 어둠의 권세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일종의 '영적 방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만들어낸 AI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AI를 분별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새 그것에 의해 사고하고 결정하며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AI가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책임 있게 AI를 다스리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AI를 정탐하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은 먼저 가나안을 정탐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탐꾼들의 시선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보았고, 그 순간 약속의 땅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민 13–14장).

오늘날 AI를 대하는 많은 목회자와 교회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 AI는 아낙 자손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AI는 결코 초월적 존재가 아니며, 인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주인이 될 수도 없다. 'AI는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tool)'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못을 박기 위해 망치가 필요하듯, 글을 쓰기 위해 연필이 필요하듯, AI는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도구의 특성과 사용법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거부부터 한다면, 그것은 정복을 위한 올바른 정탐꾼의 태도라 할 수 없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메뚜기의 시선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는 시선으로 AI를 정탐해야 한다. 실제적인 기능, 한계, 사용 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판단부터 내리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알고 분별하라.

AI를 길들여라(Grooming)

Ai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목적에 맞게 훈련하고 설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루밍(grooming)'이란 조작이나 왜곡이 아니라, 사용자의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입력하여 AI가 도구로서 바르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AI는 사용자의 질문과 명령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입력, 수정, 피드백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는 기술을 신격화하는 행위가 아니라, 도구를 도구답게 사용하는 청지기의 자세이다.

명확한 목적과 기준 없이 사용하는 AI는 오히려 사용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지침 아래에서 훈련된 AI는 목회 현장에서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

AI를 지혜롭게 활용하라

AI가 가장 탁월한 영역 중 하나는 지식 처리와 교육 자료 생성이다. 특히 생성 속도와 수행 능력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실제로 일반 학교 교사가 AI를 활용해 수업 자료와 교재를 준비할 경우, 연간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설교와 목양이라는 본질적인 사역을 제외한 행정 업무, 데이터 및 재정 관리, 문서 작성, 디자인, 영상 제작과 홍보 등은 AI를 '목회 비서' 혹은 '간사'처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미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여러 특화된 AI를 결합해 사용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AI' 방식을 통해 행정과 시스템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목회자 개인에게도 AI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경 언어 자료, 신학 논문 검색, 번역, 예화 및 역사적 사실 검증 등 기존에 10시간 이상 걸리던 작업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면, 남은 시간은 더 깊은 묵상과 기도, 성도 돌봄과 전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교육 현장에서도 AI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수준 높은 어린이 e북 전도지, 말씀 쇼츠 영상, 성경 이야기 콘텐츠, 캐릭터 제작 등은 이미 충분히 활용 가능한 영역이다. 이는 과거 색종이와 가위, 풀을 사용해 교육 자료를 만들던 것과 같은 연장선상의 도구 활용일 뿐이다.

AI의 사용 지침을 숙지하라

AI 시대라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AI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깊다.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고, 태블릿으로 설교문을 보며, 온라인 예배와 생방송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에 명확한 사용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침은 세상보다 교회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AI의 사용 방법뿐 아니라,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윤리적·영적 기준을 성경적 관점에서 정하고 그 지침을 가르쳐야 한다. 특히 30-40대 젊은 가정의 자녀 세대는 AI를 너무나 쉽게, 그리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주객이 전도되듯, 도구가 주인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담당 사역자들과 부모 세대는 AI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침을 갖추고, 다음 세대를 교육할 책임이 있다.

AI는 결코 성령의 조명이나 말씀 묵상, 영적 분별을 대신할 수 없다. AI는 계시의 주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준비를 돕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이 도구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게 정복하고 통제하여 사용한다면, AI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확장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은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시온성교회 담임목사
C&MA한인총회 Church Planting Director
ATI신학교 행정처장
수도원 Super Vision Class의 11대 회장